

# 고용시장 여전히 '냉랭'

### 3월 실업률 3.9%...취업증가를 두달째 둔화

### 전남 취업자수 작년보다 18,000명 감소

실업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고용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3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는 전월 대비 2월 4.1%를 기록한 후 한달만에 다시 3%대로 진입한 것으로 3월중 실업자 수도 92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5천명(3.6%) 감소하는 등 실업률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의 호조가 전반적인 고용시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올들어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주저앉은 데다 도소매·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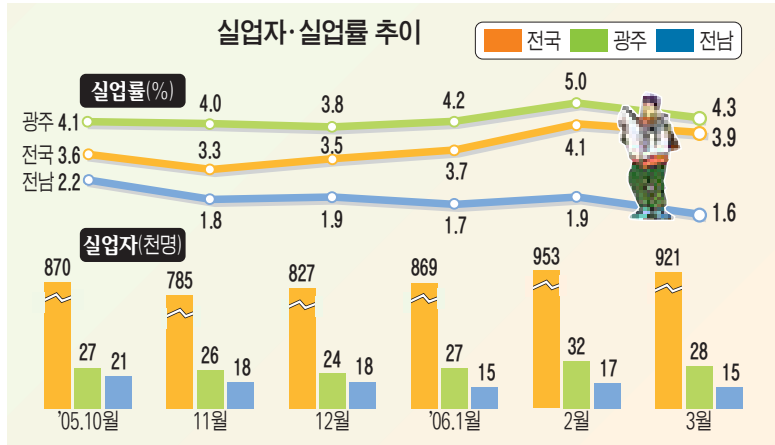
숙박업 취업자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오히려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시장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가 지속적인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주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3월에는 소비경기의 바로미터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1.0%p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또 제조업의 취업자도 2.2%p(9만5천명) 줄면서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제조업체들의 소극적인 고용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은 실업률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취업률은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3월중 실업률이 4.3%로 나



타 지난해 3월보다 1.1%p 떨어졌으며, 전남도 1.6%로 같은 기간 0.8%p의 감소율을 보였다.

3월중 취업자 수는 광주·전남 각각 61만6천명, 90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는 취업자가 지난해 3월보다 6천명(0.9%p) 증가한 반면 전남은 1만8천명(2.0%p) 감소하면서 대조를 이뤘다.

이와 함께 광주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17만6천명에 그쳐 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했고, 전남은

20만1천명으로 2월보다 오히려 2천명 감소하는 등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1·4분기 취업자 수는 전반기에 비해 4만명 가량 늘어난 데다 실업자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고용상황은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취업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스포티지와 함께 기아차를 견인할 '뉴 카렌스' 신차발표회가 기아차 임직원, 일반고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렸다.

## 신개념 CUV '뉴카렌스' 나왔다

Crossover Utility Vehicle

### 기아차, 서울랜드서 첫 공개...오늘 광주 발표회

'ENJOY! 뉴 카렌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조남일)가 13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뉴 카렌스(New Carens)'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뉴 카렌스'는 국내 최초의 신개념 콤팩트 CUV(Crossover Utility Vehicle) 스포츠와 승용 등 두가지 이상의 속성을 지닌 새로운 개념의 차량'을 기본 컨셉으로 개발된 신차이며, 24개월의 연구개발 기간과 총 2천500억원이 투입됐다. (18.8%)보다 4.5% 포인트, 제조업(23.3%)이 비제조업(19.1%)보다 4.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신규인력을 신입직 72.1%, 경력직 27.9%의 비율로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날 첫 선을 보인 '뉴 카렌스'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SUV 스타일 ▲미니밴의 시트 및 공간활용성 ▲중형 세단 수준의 부드러운 승차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차라고 기아측은 설명했다.

'뉴 카렌스'는 친환경적 LPG 연료를 사용하는 2.0 LPI엔진과 유로 IV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물론 국내 저공해 자동차 인증까지 취득한 2.0 VGT 엔진 등 두가지 모델을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LPI엔진의 최고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18.9kg.m/4,250rpm으로 기존 카렌스II보다 각각 10.6%, 8%가 향상됐으며 연

비는 8.1km/l (자동차속기 기준)로 15.7% 향상돼 동급 최고의 동력상능과 연비를 실현했다.

'뉴 카렌스'는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모터쇼를 통해 해외무대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본격 수출된다.

가격은 2.0 LPI GX 고급형이 1천 505만원 (수동)~ LIMITED, PREMIUM 2천100만원(자동)이며, 2.0 VGT GX 고급형은 1천830만원~LIMITED, PREMIUM 2천 380만원(자동)이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1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각계 인사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뉴 카렌스' 신차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

## 포스코 이구택 회장 "몸값 올리는게 M&A 방어책"

"포스코를 둘러싼 세계 철강산업의 변화와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최근 세계 철강산업의 인수·합병(M&A) 바람 등과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연일 위기의식과 대응방안을 주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3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회장은 8일 임직원과 부·실장을 대상으로 한 토요일 특강과 11일 열린 임원 운영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의식을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시장경계에서 주식회사는 M&A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바로 철강산업의 적극적인 M&A 환경을 주주가 환영한다는 것"이라며 "적대적 M&A에 대한 100% 방어수단은 없으며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가치 총액을 올리는 것인데, 주가 25만원을 기준으로 포스코 시장가치를 20% 올려 시장가치 총액이 260억달러로 오르면 적대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기업 5.7%↑ 중소기업 12.9%↓ 신규채용시장 양극화 '뚜렷'

올해 신규 채용시장에서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울, 유가 등 외부환경 약화로 전체 채용 규모는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정규직 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1천5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신규인력 채용 동태 및 전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신규채용 예상규모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2.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7%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내수경기에 민감한 비제조업(-4.2%)의 신규채용 규모 감소가 제조업(-2.2%)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위축현상을 반영했다.

신규채용 계획과 관련, '실시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답변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23.3%로 대기업(18.8%)보다 4.5% 포인트, 제조업(23.3%)이 비제조업(19.1%)보다 4.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신규인력을 신입직 72.1%, 경력직 27.9%의 비율로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CJ·대림·하이트맥주 출총제 추가

(출자총액제한)

### 대상 기업집단 11곳서 14곳으로 늘어

### 삼성·롯데 재지정...KT·철도공사는 졸업

삼성과 롯데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됐고 CJ, 대림, 하이트맥주는 신규로 지정됐다.

KT와 한국철도공사는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도 의결권 괴리도와 승수 졸업기준이 적용돼 출총제 규제를 벗었고 하이닉스, 쌍용, 한진중공업, 태영, 중앙일보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새로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자산 630억 이상으로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14개 출총제 기업집단과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이 금지되는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했다.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 현

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로 지난해 11개보다 3개 늘어났다.

삼성과 롯데는 부채비율 졸업기준이 폐지돼 올해 다시 지정됐고 CJ, 대림, 하이트맥주는 자산이 630억원을 넘어 새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출총제 기업집단 중 KT와 한국철도공사는 졸업 제도를 이용해 빠졌다.

이밖에 자산이 630억원을 넘으면서도 각종 졸업제도를 이용해 출총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은 한진, 포스코,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S (이상 괴리도·승수 기준),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하이닉스, GM대우(이

상 단순출자구조 기준) 등 14개로 지난해보다 3개 증가했다.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이지만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회계절차 진행, 지배구조 모범 기업 등의 사유로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은 120개로 지난해보다 31개 증가했다.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산업개발, CJ, CJ개발 등 6개 기업은 처음으로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통해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구조조정이 끝난 하이닉스와 쌍용, 한진에서 분리된 한진중공업, 자산이 늘어난 태영과 중앙일보 등 5개가 신규로 지정됐고 대우인 전자자동차의 자산을 GM대우에 양도해 자산이 감소한 대우자동차가 빠져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연합뉴스

## '구멍뚫은 반도체' 기술혁신

### 삼성전자, 크기 확 줄이고 성능 30% 향상

삼성전자가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적인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관통전극형 칩 접속방식의 차세대 패키지 기술(WSP)을 적용한 8단 적층 낸드플래시 제품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는 반도체를 여러겹 쌓아올려 크기는 작으면서도 성능은 뛰어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 제품의 경우 여러층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선을 연결하고, 칩 상하부 사이에 전선 연결을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그러나 삼성전자의 기술은 웨이퍼를 관통하는 구멍을 통해 칩을 연결, 기존 제품보다 30% 가량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성능은 30% 빨라지게 했다.

또 일반적인 드라이 에칭(Dry Etching) 대신 삼성 독자기술인 레이저 드릴링 방식을 채택, 포토-에칭 등 '패터닝'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제조 원가 절감도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 50nm 두께의 2Gb 낸드 플래시 8개를 적층, 전체 두께가 560nm에 불과한 16Gb의 대용량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 현대상선, 美서 최우수 환경기업 선정

현대상선이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환경 경영 기업으로 공인받았다.

현대상선은 미국 서부의 통치자 항만청이 제정한 '2005년 그린 플래그(Green Flag)'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치자 항만청은 2001년부터 '대기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선박 운항 속도를 준수하는 선

박들의 점수를 선정해 '그린 플래그'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현대상선은 자사 선박 5척이 이번 '그린 플래그'상을 받았으며 이 선박들은 향후 통치자항 기항시 연간 185만 달러에 달하던 부두 사용료를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삼성, 사업장 103곳에 '자원봉사센터' 개설

지난 2월7일 '국민계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강화방침을 밝혔던 삼성그룹은 13일 광주삼성전자 등 전국 29 계열사 사업장 103곳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는 15만 임직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근거리에서 밀착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이례전 사회봉사단 사장은 "자원

봉사센터 개설로 그동안 삼성이 펼쳐온 자원봉사의 방법과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실천력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엔 자원봉사센터 출범을 기념해 이날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1만1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469개 사회 복지 시설 및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삼성엔 앞으로 주 1회나 월 1회로 '자원봉사의 날'을 정례화해 임



삼성광주전자와 삼성생명 등은 사회복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삼성광주전자내에서 '호남지역 자원봉사센터' 발대식을 가졌다.

직원들의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3천여개 봉사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각사별로 사회봉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50명 규모로 보강했다. /이종태기자 jilee@

삼성엔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농촌마을 등을 개별 임직원 및 단체가 1대 1로 결연을 맺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

## 함께 일합니다

Recruiting 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대대청 E&T	전산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383-6831
(유)중도건설	[건축/토목분야] 조정/신입 및 경력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511-1135
신일가스	매출일보작성, 전산입력,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15	062-951-0011
광주광역시청	프로그래머 및 웹디자이너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222-8564
종합시스템	[전기기술자/환경 토목/컴퓨터관련] 사원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4/17	062-953-6256
대영캠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17	062-944-7292
파워콤 전담자	(주)파워콤 영업사원 및 홍보사원(아르바이트 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7	016-602-9322
진인 어스시메이츠	정규직 인사팀 남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4/18	062-360-1058
KBSJOB	[광주]금호생명 콜센터 문고객(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20	02-518-9900
에드해임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 광고 및 홍보 AE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2	062-226-0371
퀀스빌건설	임원차량 운전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4/23	062-572-5500
엘리디라이텍	LED조명/응용제품의 품질관리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4/23	062-602-784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